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이 흥 숙[†]

최 한 나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상담자 10인에게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부부 상담사례에서 성과에 기여한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상담 전문가 15인에게 최종 추출된 60개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유사성 분류와 평정을 실시하였고, 다차원 척도분석 및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들은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하여 '개입의 기반 대 개입 내용', '설명적 개입 대 실천적 개입' '개인 초점 개입 대 체계 초점 개입'의 3개 차원과 '가족 체계 다루기',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부부체계 평가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의 6개의 군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정 결과 상담자들은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군집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부 상담의 개입 및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치료적 개입요인, 부부 상담, 개념도

* 본 원고는 이흥숙(2015)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이흥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청파동 2가)

Tel : 02-710-9349, E-mail : greentea8815@sookmyung.ac.kr

오늘날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의 갈등과 해체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 뿐 아니라 부부, 가족의 관계 회복을 돕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와 관심의 증가에 따라 부부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개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송미화, 전영주, 2013; Johnson & Lebow, 2000; Wetchler, 2011). 그러나 실제 상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부상담 분야의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의 질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상담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논의는 상담 실제에서 전문성 향상과 상담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상담 개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증진시켰다(서진환, 2008; Sexton, 1996).

일찍이 상담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나 상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 상담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상담이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어져 왔으며, 경험적인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서로 상이한 치료적 접근들은 상담의 성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Luborsky, Singer, & Luborsky, 1975; Stiles, Shapiro, & Elliott, 1986).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상담성과 연구는 개별적인 이론적 접근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상담 과정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노력들로 활발히 이어지게 되었다(Wampold, 2013).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적인 변화 요인(Castonguay, 1993; Garfield, 1995; Tracey, Lichtenberg, Goodyear, Claiborn, & Wampold, 2003), 상담자 요인(강현주, 2002;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성승연, 2008, Kim, Wampold, & Bolt, 2006), 내담자 요인(김영란, 연문희, 2002; 이규미, 2010; 이수립, 양미진, 2009), 상담 관계 요인(김은하, 박승민, 2011; 김지현, 주은선, 2002) 등에 대한 연구들로 다양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과 기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인 상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그동안 밝혀진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이나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 상담에서는 외부의 영향력이 내재화된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부부,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가족 체계가 변화하면 각 구성원의 삶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본다(Nichols, 2014). 따라서 부부, 가족 상담에서는 관계와 체계를 다루는 개입의 초점에 따라 개인과 부부, 가족 체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하게 되고, 상담 성과 또한 개인과 체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 분야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에 접근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exton et al., 2011).

먼저 개인 상담에 적용되어온 이론적 접근과는 차별적으로 부부 상담에 적용된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면, 체계론적 패러다임이 등장

하기 이전 부부 상담의 초창기에는 개인의 적응과 변화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부부 개입의 방법과 과정이 탐색되었다(Gurman & Fraenkel, 2002). 이후 가족치료의 발전과 함께 부부 상담은 부부 가족치료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임상과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패턴(Gottman, 1994), 성인의 애정 관계에 대한 교환이론(Foa, Tornblom, Foa, & Converse, 1993)과 애착 이론(Bartholomew & Perlman, 1994; Cassidy & Shaver, 1999)이 등장하면서 부부에 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유의 상담 이론이 형성되었고, 상담 현장에서의 활성화가 이어져 왔다(Johnson & Lebow, 2000).

이러한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부부 상담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각 이론의 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부 상담의 각 이론적 접근 별 성과연구들 역시 각 이론적 접근들 간의 상담 성과에 대한 차이는 매우 작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Lebow & Gurman, 1995; Shadish & Baldwin, 2005). 이후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사회경제적 특성, 관계 친밀도, 상담에 대한 동기와 적극적 참여 등의 내담자 요인(Holtzworth-Munroe, Jacobson, DeKlyen, & Whisman, 1989; Jacobson & Christensen, 1996), 상담자의 온정, 동맹을 맺는 능력, 공감적 조율 등의 상담자 요인(김수지, 정문자, 2010; 신혜중, 노치영, 김은영, 2005; Blow, Sprenkle, & Davis, 2007; Sexton, 2007), 상담에서의 치료적 관계 요인(김희정, 2009; Friedlander et al., 2003; Knobloch Fedders, Pinosof, & Mann, 2007; Symonds & Horvath, 2004),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과 기제(전영주, 원성희, 김

수연, 2009; Bradley & Furrow, 2004; Doss, Thum, Sevier, Atkins, & Christensen, 2005)에 관한 연구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부 상담의 성과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과 부부상담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 그 이해를 도왔다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부부상담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상담자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상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들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상담자가 주체적으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김창대, 2009; Hill & O'Brien, 2004). 이러한 이유로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중 상담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영향력이 큰 요인은 상담자 개입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상담자의 개입 방향이 부적절하다면 다른 여타의 내담자 변인, 관계적 변인과는 상관없이 상담은 실패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장재홍, 권희경, 2002). 따라서 기존에 연구되어 오던 다양한 상담자 변인의 내용을 포괄하여 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 과정의 전반적인 치료적 개입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부 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로 임상장면에서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부부 상담의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부부 상담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과정(process)과 기제(mechanism)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왔다. 부부 상담의 성과로 이어지는 개인이나 부부 체계 내에서 즉시적, 매개적,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에서는 상담 회기 내의 상담자, 내담자 반응이나 작은 성과(small outcome)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상담 과정에서 보이는 관계와 관련된 내담자의 행동(Davidson & Horvath, 1997; Halford, Saunders, & Behrens, 1993), 의사소통 패턴(Kelly & Halford, 1995), 부부 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인지의 변화(Baucom, Sayers, & Sher, 1990; Davidson & Horvath, 1997; Kelly & Halford, 1995)와 정서의 변화(Johnson & Greenberg, 1985)에 관하여 많은 부분이 알려지게 되었다(Doss et al., 2005). 이러한 기존의 변화 과정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한 이론적 접근의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Heatherington, Friedlander, & Greenberg, 2005).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의 내담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내담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담자의 개입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상담자의 개입의 측면으로 전환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실제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 이론적인 관점에서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부부 상담의 임상 장면에서 성과를 가져온 개입과 과정에 관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개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부상담의 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던 다양한 연구들은 각각 병렬적으로 혼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성과를 가져온 개입 요인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개입의 요인들이 상담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인지구조를 가지는지를 밝힌다면 향후 부부상담자들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 요인의 다면적인 특성과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상담에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한 상담자의 인지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숙련된 상담 전문가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와 기술에 관한 문자적인 지식과는 달리 경험을 통해 기능적 형태로 조직되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Bennett-Levy, 2006). 상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한 초보자와는 다르게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지식을 조직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Chi, Feltovich, & Glaser, 1981). 집단 상담 분야에서도 숙련된 집단 상담가가 더 높은 심리학적 차원을 사용하였으며 집단원에 대해 좀 더 차별화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vlighan & Quigley, 1991). 뿐만 아니라 숙련된 상담자는 초급 상담자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상담

사례를 개념화하고 가설을 형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권혜경, 이희경, 2013; 손은정, 이혜성, 2002; 여혜경, 2000). 그러므로 실제 성과를 가져온 상담 사례를 통해서 숙련된 부부상담자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인지구조를 탐색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부부 상담의 실제에서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의 개입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개입요인을 인식하는 상담 전문가의 인지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효과적인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시각적인 공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개념도 방법(Kane & Trochim, 2007)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담 접근을 모두 포괄하여 실제 성과를 가져온 부부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인 개입 요인을 탐색하고, 상담자들이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 요인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차원과 균집을 확인하며 이러한 개입 요인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이 개인 상담 분야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양한 부부 상담 이론에서의 개입의 측면이 상담 실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실질적으로는 부부 상담의 실제에서 보다 효과적인 통합적, 절충적 개입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추후 부부 상담자를 위한 교육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자가 인식하는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상담자는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어떠한 차원과 균집으로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3.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해 상담자가 부여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절차에 따라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 참여자, 최종 진술문 구조화 및 중요성 평정 과정의 참여자로 구성된다.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기초 진술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성과를 가져온 부부상담 사례에서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상담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부부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주된 이론적 접근을 갖춘 상담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 상담자들은 여자가 9명, 남자가 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최종 학력은 석사 졸업이 1명, 박사 과정 1명, 박사 수료 2명, 박사 졸업이 6명이었다. 연구 참여

자들의 소속기관은 대학, 사설상담기관, 대학 부설 상담센터, 사설 상담 기관이었으며 이중 소속이 중복된 참여자를 포함하여 8명이 사설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부부 상담경력은 10년 이상이 5명, 5-10년이 4명, 5년 미만이 1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진행한 부부상담 사례 수는 평균 348사례로 500사례 이상의 상담자는 5명이었다. 참여자 중 5명은 대학원에서 부부 가족 상담 전공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부상담 관련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주관하였고 부부상담 관련 저서를 집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론적 접근과 보유 상담 자격증은 이후 진술문 평정 과정 참여자에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 참여자

부부 상담자들의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된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관한 진술문을 통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는 연구자를 포함한 총 4명이었다. 연구자를 제외한 참여자는 상담 전공 교수 2명, 상담 전공 박사 과정중인 상담자 1명으로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평균 46세였고 상담 경력은 평균 12.5년이었다.

진술문 분류 및 중요성 평정 과정 참여자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관한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성 평정 과정의 참여자들은 이전 진술문 생성에서 참여한 부부 상담 전문가 10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1세였고, 성별로는 남자 1명, 여자 14명이었다. 최종학력은 석사졸업 1명, 박사과정 1명, 박사수료 3명, 박사학위 10명이었고, 소속기관은 대학 5명,

사설상담센터 10명, 대학부설 상담센터 3명, 기타 1명으로 복수로 소속되어 있는 상담자가 4명 있었다. 참여자들이 소유한 자격증은 복수 응답하였을 때 상담심리사 1급 9명,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5명, 임상심리전문가 5명, 청소년 상담사 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부부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론적 접근을 복수로 선택하였을 때 행동적 접근 2명, 정신역동적 접근 1명, 경험적 접근 7명, 체계론적 접근 7명, 통합적 접근 5명, 기타 2명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중 경험적 접근과 체계론적 접근을 사용하는 상담자들이 가장 많았다. 행동적 접근에는 행동주의와 인지행동적 접근이 포함되었으며 경험적 접근에는 경험주의, 정서중심, 가트만 상담 접근이 포함되었다. 체계론적 접근에는 통합적인 체계론 외에 보웬 이론, 의사소통 이론이 포함되었다. 통합적 접근에는 통합적 행동주의 부부상담 접근이, 기타에는 교류분석이 포함되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요인이라고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내용을 탐색하여 그 차원과 요소를 확인하고자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치료적 개입 요인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진술문 추출을 위한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초점화된 하나의 질문을 선정하는 타 개념도 연구와는 달리 실제 부부상담 사례를 통해서 상담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과 개입 요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부 상담에서 치료적인 성과와 그 과정에 관한 각종 논문과

문헌을 검토하고 Davis(2005)에 제시된 부부 상담에서 변화의 과정에 관한 질문을 참고로 하여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질문 목록을 구성한 후 부부 상담 경력의 1년의 여성 상담자에게 부부 상담 경험에서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예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상담전공 교수 1인과 논의 후 질문 7개를 선정하였다(질문 예: “상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내담자 부부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선생님께서 부부 상담을 진행해 오시면서 경험한 부부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둘째,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진술문 수집 단계에서는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요인에 관한 아이디어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부부상담 전문가 10명과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총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접 소요 시간은 연구 참여자 당 50분 -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절차를 마친 후 상담전문가 10명과의 면접 내용을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축어록을 읽으면서 상담에서의 변화의 과정에 치료적인 요인에 대하여 기초 아이디어 진술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아이디어 진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인식 내용을 존중하고 진술문의 내용도 참여자의 용어로 표현되도록 노력하였다(Kane & Trochim,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 당 각 30개 - 62개의 아이디어를 추출하였으며 수집된 아이디어 진술문은 총 442개였다.

셋째,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진술문 통합 및 편집 단계에서는 기초 진술문을 통합, 편집하여 최종 편집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1명의 상담 전공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된 평정 팀에서 총 442개의 진술문을 유사한 주제로 묶고 그 내에서 다시 분류하여 총 60개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공통된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2인이상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아이디어 진술문만을 목록에 포함시켰고(Bedi, 2006), 개별 진술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의 진술문 분류를 위해서 최종 진술문을 선정하고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에 2명의 편집 과정 참여자에게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진술문 편집과정 공동 참여자의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수정된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은 총 60개가 선정되었다.

넷째, 최종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단계에서는 1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통합 및 편집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진술문들을 가지고 유사성 분류를 위한 60개의 진술문 카드를 제작하였다.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끼리 분류하도록 하였다. 카드 분류 방법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60개의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남은 카드가 없도록 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류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 각자가 분류한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명명하도록 하였다. 진술문 분류와 함께, 각 진술문에 대한 평정(rating)작업도 실시하였다. 각각 60개의 진술문들이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진술문 분

류 및 평정 작업은 개인 당 평균 40~5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개념도 제작을 위한 분석과정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뉘 이루어졌다. 첫째, 개념도 제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15명의 참여자들이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최종 진술문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개인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로 작성하고 15명의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둘째, GSM를 바탕으로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ALSCAL법)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분석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치료적 개입 요인의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점들의 1, 2, 3 차원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의 타당화를 위하여 군집 분석에서 사용한 Ward 연결 방법 이외에도 중심 연결법, 평균 연결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결 과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원

연구 참여자들은 60개의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요인의 진술문들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M=12.73$, $SD=2.69$). 이들이 분류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차원에 따른 합치도(stress), 설명량(R^2)이 산출되었다. 합치도를 이용하여 치료적 개입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값을 비교하여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을 그려보았을 때 2차원에서 .35, 3차원에서 .24를 보였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졌다. 2차원과 3차원은 모두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분석의 스트레스 값의 평균범위인 .205~.365에 해당하지만(최운정, 김계현, 2007; 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부부상담의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에 대한 차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차원의 수를 3개 차원으로 결정하였다.

참여자가 분류한 치료적 개입 요인 진술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차원의 공간에 표상된 자료를 분석할 차원을 3개로 정하고 각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각 차원 상 분포한 진술문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3개 차원을 편의상 1, 2, 3차원으로 명하고, 부부상담자가 인식한 치료적 개입 요인의 개념도를 각각 2차원의 공간에서 나누어 그림 1은 1차원×2차원, 그림 2는 2차원×3차원, 그림 3은 1차원×3차원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각 진술문의 위치와 거리, 차원별 좌표 값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치료적 개입 요인의 유사성을 분류할 때 사용한 분류기준 등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3개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의 정적 축에 놓인 진술문부터 부정적 방향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 진술문까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정적 방향에 분포한 진술문들은 부부 상담에서 기술적인 개입과 전략의 내용을, 부정 방향에는 부부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역량에 관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적인 방향의 축에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지해준다.’, ‘부부에게 중립을 지킨다.’, ‘부부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다.’, ‘상담초기에 부부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등의 개입의 기반에 관한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정적인 방향의 축에는 ‘부모와의 미분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부부의 경계를 만들도록 한다.’,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한다.’, ‘상담에서 익힌 대화법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한다.’, ‘부부가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주도록 한다.’ 등의 구체적인 개입의 내용에 관한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차원은 부부 상담에서의 ‘치료적인 개입의 성격’에 관한 차원으로 ‘개입의 기반-개입의 내용’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2차원의 정적 축에 놓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가족 전체의 구조의 역기능을 파악한다.’, ‘원가족 분석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한다.’ 등의 내용으로 부부의 가족 체계와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입, 부부문제에 관련된 개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입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부적 방향의 축에는 ‘부부에게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한다.’, ‘효과적인 대화법을 가르친다.’, ‘배우자에게 두려워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등의 진술문이 분포하여 상담에서의 교육, 조언 등의 직접적 개입과 부부가 정서와 욕구의 소통과 수용을 촉진하는 개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입의 특성들의 분포로 살펴볼 때 2차원은 부부 상담에서의 ‘치료적

개입의 방식’으로서 ‘설명 중심 개입-실천 중심 개입’의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정적 축에는 교육, 문제해결 등의 각 개인의 실천과 참여를 통한 변화에 전략을 둔 개입들과 개인 내면에 초점을 둔 개입에 관한 진술문들이 분포되었다. 그 예로 ‘부부에게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한다.’, ‘배우자를 바꾸기보다는 자신이 변화해야 함을 깨닫도록 한다.’, ‘자신을 조절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게 한다.’ 등의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부적인 축에 놓여있는 진술문들은 부부의 욕구와 정서의 소통과 수용에 관한 진술문과 부부체계 평가, 가족 체계를 다루는 개입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심리검사 해석을 하면서 부부의 강점, 약점, 상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원가족 분석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등이다. 진술문의 위치와 내용으로 볼 때 3차원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둔 개입과 ‘가족과 부부의 체계의 수용’에 초점을 둔 개입으로 구분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3차원은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의 초점’을 의미하므로 ‘개인 초점 개입-체계 초점 개입’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군집과 중요도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요인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60개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다차원 분석 결과 생성된 3차원의 좌표 값을 데이터로 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

자들이 분류한 묶음수 내에서 군집 수가 고려되었으며, 각 군집은 개념적으로 명료한지, 군집 내에서는 진술문들의 의미가 유사하고 군집 간에는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Gol & Cook, 2004). 분석 결과에 나타난 군집화 순서표를 보고, 계수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보면서 적절한 군집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타당화를 위하여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과 중심연결법(centroid linkage)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6개의 군집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같은 군집 내 진술문들의 의미를 대표하면서 다른 군집들과의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진술문 카드 분류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직접 부여한 분류 기준과 주제를 참고로 결정하였다. 군집 내 소군집의 분류는 군집 분석의 결과와 참여자들의 분류한 주제를 참고로 하여 군집내의 진술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60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상담자 개입 요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였다. 이때 평정된 문항 별, 군집 별 중요도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된 개념도 상에 분류된 군집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 1은 ‘가족 체계 다루기’로 명명되었으며 총 10 문항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가족 체계 다루기’ 군집($M=4.09$)에는 ‘가족 구조의 이해와 변화($M=3.93$), 원가족 탐색을 통한 부부·가족의 이해($M=4.32$)’의 소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가족 구조의 이해와 변화’의 소 군집에는 가족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개입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원가족 탐색을 통한 부부·가족의 이해’는 다세대에 걸친 원가족의 탐색을 통하여 현재 자신과 배우자, 결혼과 부부 갈등에 대한 이해하고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게 하는 개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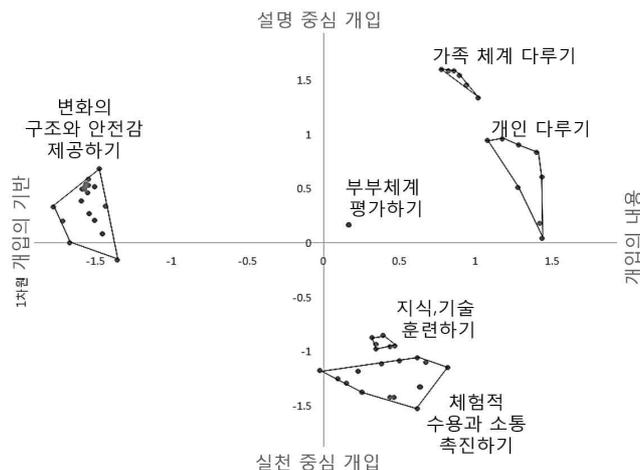


그림 1. 1차원×2차원
개입의 기반-내용/설명 중심-실천 중심
부부상담자가 인식한 치료적 개입요인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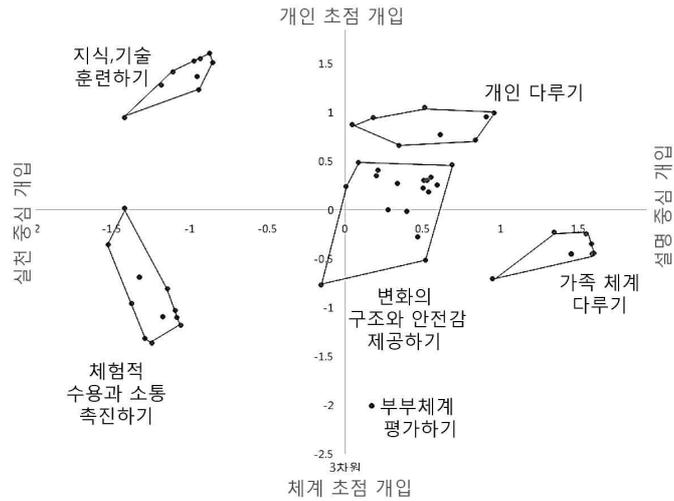


그림 2. 2차원×3차원
 설명중심-실천중심/개인초점-체계초점
 부부상담자가 인식한 치료적 개입 요인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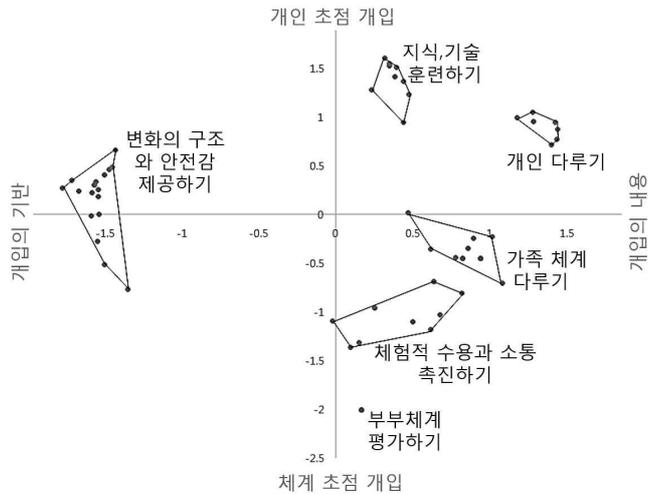


그림 3. 1차원×3차원
 개입의 기반-내용/ 개인초점-체계초점
 부부상담자가 인식한 치료적 개입요인의 개념도

이루어져 있다. 군집 2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M=4.48$)를 살펴보면, 총 7개의 진술문으로 ‘부부 역동에 대한 자기 이해 (M=4.7)와 ‘개인 역동 이해와 자기 돌봄 (M=4.35)’의 소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2 는 개인의 성찰과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

루면서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자신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의 변화의 주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개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의미한다. 군집 3은 3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부체계 평가하기'(M=3.49)로 명명되었다. 부부의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부부의 갈등,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부 체계를 진단하고 평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개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집 4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M=3.87)로 명명되었으며 9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부부 상담에서의 직접적인 개입과 교육에 대한 개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코칭'(M=3.62), '부부 대화법의 교육과 실천'(M=4.02)의 소 군집에서는 각각 부부의 결혼 생활의 역할과 영역에 관한 문제 해결과 조언, 실천을 위한 것과 대화법의 교육과 과제 실천에 대한 개입을 담고 있다. 군집 5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M=4.49)는 총 13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지며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욕구의 인식'(M=4.02), '욕구 감정의 표현과 소통'(M=4.68), '배우자 수용'(M=4.55)의 소주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가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인지와 정서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부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일깨우고 부부가 서로 속마음을 표현하여 소통하고 수용되는 경험을 유도하는 개입과 배우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개입들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수용과 소통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군집 6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M=4.41)는 18문항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 상담자의 기본 상담 기술, 내담

자와의 신뢰 관계, 부부 상담의 초기 개입 역량의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군집 6에서는 진술문들은 부부에게 변화를 위한 준비를 돕고 현재의 위기에 대하여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제안하며,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개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로 군집 명을 선정하였다. 소 군집을 살펴보면 '부부 상담의 기본 기술'(M=4.37)에는 내담자의 변화 동기 이끌어내기, 공감과 지지, 중립 지키기 등 부부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M=4.67)에는 믿음과 신뢰를 통한 안전감을 갖게 하는 개입이 포함되고, '부부 상담에서의 초기 개입 역량'(M=4.32)에는 상담의 초기에 부부 상담에 대해 안내하고 내담자들에게 상담에 대해 준비시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이렇게 6개의 군집은 이러한 부부 상담자들이 분류한 치료적 개입 요인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6개의 군집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적 분류 기준인 세 가지 차원에 따른 위치의 분포를 근거로 군집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6 '변화의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는 1차원×2차원, 1차원×3차원의 공간에서 볼 때 다른 5개의 군집 즉 기술, 전략적인 개입 요인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분포하고 있다. 군집 6은 2차원×3차원의 공간 내에서 각 군집들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나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을 통해서 군집 6을 살펴보면 1차원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적인 방향에 위치한 다른 5개의 군집들과는 매우 먼 거리

표 1. 분석결과 산출된 군집과 소군집, 진술문, 중요도

군집	소군집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내용	중요도 (M)	표준 편차 (SD)
군집 1: 가족 체계 다루기 중요도 4.09	가족 구조의 이해와 변화 중요도 3.93	28 가족 전체의 구조의 역기능을 파악한다.	4.13	.83
		29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4.00	.84
		30 부모와의 미분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부부의 경계를 만들도록 한다.	4.40	.63
		31 필요에 따라 가족 상담을 하여 부모나 자녀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한다.	3.73	.88
		32 필요에 따라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한다.	3.07	1.03
	33 시가, 처가와의 갈등이 클 때 부부가 먼저 합의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4.27	.46	
	원가족 탐색을 통한 부부·가족의 이해 중요도 4.32	34 어린 시절 경험과 가족 배경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한다.	4.53	.64
		35 원 가족 분석을 통해 원가족의 상처가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	4.27	.59
		36 원 가족 분석을 통해서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4.40	.63
		39 가족의 자원이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4.07	.59
군집 2: 관계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중요도 4.48	부부역동에 대한 자기 이해 중요도 4.7	18 배우자를 바꾸기보다 자신이 변화해야 함을 깨닫도록 한다.	4.73	.49
		27 부부 문제의 역동을 만드는 데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4.67	.82
	개인역동의 이해와 자기 돌봄 중요도 4.35	15 필요할 때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4.27	.70
		16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을 통해 상담자에게 이해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한다.	4.00	.76
		17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하도록 한다.	4.27	.70
		19 자신을 조절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게 한다.	4.67	4.88
20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부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한다.	4.54	.64		
군집 3: 부부체계 평가하기 중요도 3.49	5 개인의 특성과 부부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한다.	3.20	.86	
	6 검사 결과 해석을 통해 개인 내적인 심리상태, 부부의 갈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알려 준다.	3.73	.80	
	7 심리검사 해석을 하면서 부부의 강점, 약점, 상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3.53	.64	

표 1. 분석결과 산출된 군집과 소군집, 진술문, 중요도 (계속 1)

군집	소군집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내용	중요도 (M)	표준 편차 (SD)		
군집 4: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 중요도 3.87	부부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코칭 중요도 3.62	1	부부에게 관계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	4.13	.64	
		3	부부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기여도,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균형(balance)을 맞추고 수용점을 찾으려 한다.	3.20	.86	
		8	현재 부부의 상황에 맞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고 제안한다.	3.00	.85	
		10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코칭을 제공 한다.	3.53	.83	
		21	부부에게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한다.	4.07	.70	
		6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에게 각자 해야 할 행동을 제시 한다.	3.80	.56	
	부부대화법 교육과 실천 중요도 4.02	23	효과적인 대화법을 가르친다.	3.93	.83	
		24	상담자가 먼저 효과적인 대화법의 시범을 보이고 코칭 한다.	3.93	.59	
		25	상담에서 익힌 대화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4.20	.67	
	긍정적 욕구의 인식 중요도 4.02	2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으로 재정의(reframing) 해준다.	4.40	.73	
		56	부부의 서로 다른 점이 좋은 보완이 됨을 설명한다.	4.07	.79	
		57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부부에게 긍정적인 예외의 상황을 보게 해준다.	4.20	.68	
		58	부부가 가졌던 문제에는 부정적인 면 외에도 긍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해준다.	4.13	.74	
	군집 5: 부부 사이의 체형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중요도 4.49	욕구, 감정의 표현과 소통 중요도 4.68	12	부부가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주도록 한다.	4.87	.35
			14	정서적인 소통을 하여 배우자에게 이해받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4.87	.35
48			배우자에게 두려워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한다.	4.67	.49	
49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4.60	.63	
55			부부의 내면에 있는 서로에 대한 마음, 열망을 읽어주고 알게 해준다.	4.40	.63	
배우자 수용 중요도 4.55	13	정서적인 유대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4.40	.73		
	22	배우자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4.73	.46		
	26	문제라고 생각한 배우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4.47	.64		
	47	부부의 표면적인 갈등 이면에 있는 자신과 배우자의 욕구와 감정을 알게 한다.	4.60	.51		

표 1. 분석결과 산출된 군집과 소군집, 진술문, 중요도 (계속 2)

군집	소군집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내용	중요도 (M)	표준 편차 (SD)			
군집 6: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 중요도 4.41	부부상담의 기본 기술 중요도 4.37	4	참여의지가 낮은 내담자에게 내면의 변화 동기를 끌어낸다.	4.53	.52		
		9	상담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한다.	3.80	.68		
		11	내담자의 반응을 반영하고 명료화해 준다.	4.47	.64		
		37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4.67	.62		
		38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	4.67	.62		
		39	부부에게 중립을 지킨다.	4.53	.52		
		40	부부의 갈등 위기나 저항에 휘말리지 않는다.	4.47	.52		
		41	상담 과정을 견디며 노력하는 부부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4.53	.52		
		42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07	.88		
		46	부부 상담의 적절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다.	4.60	.51		
		52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 변화를 다질 수 있도록 천천히 상담을 이끌어간다.	3.73	.70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 중요도 4.67		43	부부가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4.60	.51
				44	부부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다.	4.80	.41
				45	상담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60	.63
부부상담의 초기개입 역량 중요도 4.32		50	상담 초기 부부가 바라는 것을 충분히 탐색한다.	4.53	.64		
		51	상담 초기 상담에서 지켜야하는 규칙과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약속한다.	4.07	.59		
		53	상담 초기에는 상담 과정과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한다.	4.20	.56		
		54	상담 초기에 부부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4.47	.64		

에 위치하여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차원×3차원의 상에서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들의 분포로 볼 때,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경로와 방식이 어떠한가'와 '개인과 체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설명 중심-실천 중심 개입'의 2차

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정적 방향의 극단에, 군집 4, 군집 5는 부적 방향의 극단에 분포 되어 있다. '개인 초점-체계 초점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3차원은 군집 4와 군집 2가 정적인 방향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반대의 위치에 군집 3, 군집 5, 군집 1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군집 4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는 '개인 초점-실천 중심' 사분

면에 위치하고 군집 5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는 '실천 중심- 체계 초점' 사분면에, 군집 1, 군집 3 '가족 체계 다루기'와 '부부체계 평가하기'에 관한 개입은 '설명 중심- 체계 초점' 사분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하여 상담자의 경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상담자들이 치료적 개입 요인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차원과 군집을 확인하며 이러한 개입 요인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분석의 결과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의 성격, 개입의 방식, 개입의 초점을 의미하는 3개 차원이 확인되었다. 이를 개인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을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입이 구현되는 실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개입의 성격'을 의미하는 '개입의 기반- 개입의 내용' 차원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들은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크게 개입의 기반을 만드는 상담자의 태도와 역량에 관한 요인들과 개입의 기술적 내용을 담은 요인들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 상담에서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개인 심리치료의 공통요인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지 구조에 관한 연구(박수영, 최한나, 2013; Tracey et al., 2003)에서 상담자 역할과 치료적 활동의 차원, 상담자 기술-상담자 태도의 차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내담자들이 인식한 상담에서의 성과 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상담자의 기술적 개입과 상담자의 촉진적 태도의 차원들이 발견되었다(김영근, 2013; 정찬석, 2005;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기술 개입적인 측면과 이를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담자의 기본적인 수용과 촉진적인 태도, 역량의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상담자로서의 기본 태도와 역량을 발휘하고 기본적인 상담 기술을 사용하는 개입들은 상담에서의 과정(process)을 통한 개입의 측면으로써, 개입의 내용 차원에 분포하는 이론에 따른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는 개입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창대 외,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이는 상담의 진행과정에서 기본적인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담자 요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에는 전문적 기술 개입의 요소 뿐 아니라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 역량, 상담 관계 요인들이 중요한 촉진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고미영, 1996; 김유순, 2004; Blow & Sprenkle, 2001; Blow, Sprenkle, & Davis, 2007; Friedlander & Tuason, 2000; Sexton, 2007). 이러한 사실은 그간 치료적 변화에 관한 두 가지 패러다임이었던 각 상담 접근의 특정한 개입 요소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특수요인론, 상담 이론에 관계없이 모든 치료자에게 공통적인 요

소들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공통요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요인과 공통요인,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두 가지 패러다임의 장점을 취하는 최근 부부, 가족상담 학계의 중도적 관점과 일치한다(Sexton et al., 2011; Sprenkle, Davis, & Lebow, 2009).

이렇게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 간에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에 대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개입이 구현되는 실제 방식에 있어 차이를 발견하였다. 개인상담의 상담자 요인에 관한 진술문(박수영, 최한나, 2013) '내담자가 정서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도록 한다.'와, 본 연구의 '부부가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주도록 한다.'의 진술문을 비교해보면,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의 정서를 탐색하고 확인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부부 상담에서는 부부 간의 정서의 확인과 소통을 강조하여 부부가 서로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다.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개입이라도 개입의 대상과 강조점을 두는 방향에 따라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에서의 개입의 방식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상담에서의 문제의 이해를 위한 주요한 개입은 심리적인 내면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부부 상담에서는 내면의 이해를 위한 개입은 자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부부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부부 상담의 특성에 따라 부부와 가족체계를 관계적 관점에서 다루는 개입에 관한 진술문들이 확인되었다. '부부 문제의 역동을 만드는 데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도

록 한다', '부부에게 중립을 지킨다' 등의 치료적 개입 요인들은 부부 가족 상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관계적인 관점으로 개념화하고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며, 변화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부부 상담에서의 개입의 특성들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었다(Sprenkle, Davis, & Lebow, 2009).

둘째,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의 다차원 분석의 결과 확인된 개입의 방식과 개입의 초점의 차원을 통하여 부부 상담의 각 이론에서 나타난 부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식과 상담 개입의 초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개입의 방식'을 의미하는 차원은 '설명 중심 개입 - 실천 중심 개입'으로 구분되었고 이것으로 볼 때 상담자들은 부부문제에 관하여 가족 체계와 구조의 관점이나 개인 내면의 심리적인 역동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접근 방식들과, 부부가 직접적인 행동의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정서와 욕구를 소통하게 하는 방식들을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경로와 방식을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인식의 지표를 삼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입의 방식에 대한 설명 중심 개입- 실천 중심 개입의 차원은 부부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Blow & Sprenkle, 2001; Christensen, Russell, Miller, & Peterson, 1998; Davis & Piercy, 2007)들에서 언급되어온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변화를 위한 부부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의 특성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명 중심 개입은 인지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들을 포함하며 실천 중심

개입에서는 행동의 변화, 정서의 소통을 위한 개입들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명적 개입-실천적 개입의 차원은 선행연구들에서의 부부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치료적 개입 요인의 견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설명적 개입-실천적 개입의 차원을 통하여 각 부부 상담 이론의 기술적 개입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 설명적 개입의 차원은 인지적 자각과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부부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Bowen의 다세대 부부 치료적 접근, 대상관계 부부치료, 통찰 지향적 부부치료에서 설명적 개입의 차원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접근들은 일단 부부의 현재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적 개입을 먼저 취하기보다는 외부 체계나 개인 내면의 체계를 이해하여 부부 문제에 대한 정서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추구한다(Bowen, 1976; Scharff & Scharff, 1996; Snyder, 1999). 반면 실천 중심 개입과 관련된 접근은 정서중심 부부치료, 가트만 방식 부부치료, 행동주의 부부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접근에서는 부부가 변화를 위하여 직접 서로 간에 긍정적 행동을 실천하고 정서적인 욕구를 발견하여 표현하고 수용하는 상호교류를 통해 부부의 문제에 접근 한다(Gottman, Driver, & Tabares, 2002; Jacobson & Margolin, 1979; Johnson, 1996).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부상담 이론에서 기술적 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유한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경험적인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입의 초점'을 의미하는 '개인 초점 개입 - 체계 초점 개입'의 차원을 통

하여, 부부 상담에서 개입의 초점을 두는 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을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 부부 상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인적 성찰이나 행동적인 실천을 시도하는 등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인지, 부부체계를 평가하고,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체계의 이해를 통하여 부부와 가족 체계의 수용에 초점을 두는 개입인지를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인식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 초점-체계 초점 개입의 차원을 통하여 부부 상담의 이론을 비교해 볼 때, 부부 문제 해결이나 관계의 변화를 위해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들과,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이나 관계를 강조하여 가족, 부부 체계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부부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ucom, Epstein, & Gordon, 2000). 현재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행동주의적 접근과 정신 역동적 접근의 부부상담은 각 개인의 행동이나 내면에서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를 유도하며, 정서 중심적 접근, 체계론적 접근 등은 현재 부부의 문제를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변화의 출발점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 상담의 종결 시기에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부부 문제행동의 감소나 관계의 개선의 성과를 이룬다. 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고유한 개입 과정과 기제를 통하여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이다(Gurman, 2013). 이렇게 상담자들이 부부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에 대하여 '개인 초점 대 체계 초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이유는 부부 상담의 고유한 성격과 부부상담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상담은 부부와 가족의 체계를 다루지만 가족 상담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심리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족 상

담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각자의 심리 내적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으나 부부 상담에서는 부부의 상호작용과 심리 내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특성을 가진다(Nichols, 2014). 이러한 부부 상담의 이론과 입상의 분야는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개인상담, 가족 상담과는 차별화된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Gurman & Fraenkel,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부부상담의 개입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식은 다양한 부부상담 이론의 개입 방식과 초점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뒷받침한다.

근래에는 개인, 또는 체계의 접근을 넘어서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부부상담 학계에 다양한 관점과 전략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위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행동주의 부부 치료 접근에서 이후 한계점이 제시되면서 기존의 행동변화를 위한 전략과 수용 전략을 통합시킨 통합적 행동 부부 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의 관점이 등장하였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새로운 관점의 이론에서는 기존의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차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려는 기존의 관점과 함께 정서적 수용을 촉진시키고 불일치를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관점을 더하여 융통성 있게 접근하려는 방향을 통합하였다(김중술 외, 2002; Dimidjian, Martell, & Christensen, 2002). 이처럼 실제 부부상담의 현장에서는 내담자와 문제의 특성에 따라, 상담자의 관점과 접근법에 따라 부부 상담에서 부부 변화를 촉진하는 치료적 개입 요인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통합적, 절충적 사용을 위해서는 통합의

관점, 통합의 범위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Gurman, 2011). 실제 부부 상담의 현장에서 절충적,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 본 연구의 효과적인 개입 요인에 대한 인식 차원의 관점을 활용한다면 실제 임상에서의 개입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그 예로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변화에 초점과 부부체계의 수용에 초점을 두는 두 가지 관점을 융통성 있게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통해 부부 상담의 실제에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부부상담의 치료적 요인의 군집의 분포에 따라 부부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도의 공간에서 볼 때 체계 초점의 차원과 설명적 개입의 차원에 분포하고 있는 ‘가족 체계 다루기’ 군집은 가족 구조의 이해와 변화를 돕는 개입과 원 가족 탐색을 통하여 부부, 가족의 이해를 돕는 개입을 말한다. 이 중 ‘가족 구조’에 관한 개입의 진술문에는 부부나 가족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코칭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원가족 탐색’에 관한 개입은 3대 이상의 가족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객관화할 수 있게 해준다(Baucom, Epstein, & Gorden, 2000).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군집은 부부 역동에 대한 자기 이해, 개인 역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 돌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입의 초점을 개인에 맞추고 부부 문제를 이해와 성찰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변화를 유도하려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 역동에 대한 자기 이해에 위한 개입들을 통하여 부부 문제 내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악순

환에서 벗어나 자신이 먼저 변화의 주체로서는 의식적인 통찰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Davis & Piercy, 2007). 이렇게 ‘가족 체계 다루기’ 군집과 ‘개인 다루기’ 군집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대상의 초점은 다르지만 개입을 하는 방식에서는 이해하고 성찰하여 객관화하는 설명적인 유사한 개입 방식을 가진 것을 말해준다. 한편 ‘부부체계 평가하기’ 군집은 위치상으로 볼 때 체계 초점을 둔 설명적인 개입의 공간에 분포되었으며 부부문제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 이해와 부부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개입으로 인식되었다. 부부 체계 평가의 개입은 앞으로 부부 문제의 이해 뿐 아니라 상담의 진행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한재희 외, 2013).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 군집은 부부 대화법 교육과 실천,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코칭의 개입을 의미하며, 개인 초점 개입의 차원에 위치한 것은 각 개인의 실천과 참여를 지향하는 개입의 성격을 반영한다. 행동 교환이나 새로운 대화법의 실천은 변화의 동기가 높고 서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진 부부들에게 효과적이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 시도를 통해 부부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개입들은 각 개인의 준비도와 동기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군집은 체계를 초점으로 실천적인 개입을 하는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 ‘부부 사이의 욕구와 감정의 표현과 소통’, ‘배우자 특성의 수용’, ‘긍정적인 조망의 발견’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정서, 욕구와 관련된 발견, 표현과 수용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군집은 상담 실제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지식, 기술 훈련하기’ 군집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부부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이후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기본 태도 역량의 내용을 담은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 군집은 3차원의 공간에서 볼 때 나머지 기술적 개입의 내용을 담은 군집들과 멀리 떨어져 분포한다. 개입의 기반-개입의 내용 차원의 논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는 다른 기술 개입적인 요인들을 적용하기 위한 상담에서의 기반을 다지는 개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적인 위치에서도 다른 군집들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상담자들은 상담에서의 안전한 구조와 관계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입을 상담자 태도, 관계적 요소 뿐 아니라 기본 기술까지도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부부 상담에서 효과를 가져오는 개입의 특성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변화를 가져오는 기제에 대한 범 이론적인 이해는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치료적 개입의 실천적 적용과 평가에 유용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각 군집을 중심으로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볼 때, 부부 상담자들은 ‘부부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 군집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개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 상담자들의 실제 치료적 개입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평정 평균값의 순서대로 6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부

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M=4.49),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M=4.48),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M=4.41), '가족체계 다루기'(M= 4.09),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M=3.87), '부부체계 평가하기'(M=3.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부상담자들의 판단한 개입의 중요도는 개인 상담에서의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상담자들도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있어서 내담자와의 동반자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요인을 제시하였고 정서에 초점을 둔 개입과 타당화, 수용 등의 개입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김창대 외,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담자들은 개인 상담 뿐 아니라 부부 상담에서도 정서와 욕구에 초점을 둔 개입과 개인을 변화의 주체로 다루기, 그리고 상담자의 기본 태도 역량 기반의 개입을 중요한 개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기'와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의 군집에 대한 높은 중요도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의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관계 중심의 한국 문화에서의 상담의 특성과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고려할 때(송성자, 1997; 이선희, 임성문, 2013; 한재희 외, 2013), 부부 상담에서 이론과 실제에서 정서지향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와 부부 체계의 수용을 돕는 실천적인 개입에 대하여 경험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인 개입 요인을 탐색하려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부부 상담의 역사로 볼 때 그동안 부부 상담을 단지 가족의 하부 체계로 간주하거나 개인상담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구의 경향에 있어서도 부부 가족 상담으로 묶여 공동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부부 상담의 사례는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며(Gurman & Jacobson, 2002), 이는 부부체계는 가족체계로서의 기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깊은 상처를 투사하고 공유하는 특별한 체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독립된 분야로 발달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상담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다루었던 개별적인 사례의 분석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에 대한 접근을 넘어서서 부부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의 과정과 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상담자들의 인식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의 부부 상담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하여 성과를 가져온 상담에서의 변화 과정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최근 부부상담의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부부 상담에 관한 유관한 전공 분야의 임상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이남옥 외, 2011), 부부 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상담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정교영, 신희천, 2007). 이러한 시기에 숙련된 부부 상담 전문가의 개입 과정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관계를 다루는 상담에서 문화의 영향은 지대하다. 현 세대의 한국의 부부에 대한 개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추출된 요인들은 효과적인 개입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주요 차원과 군집을 밝혀내고 그 특성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별적인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소수의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부부 상담 연구들을 통해서도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과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부 상담의 이론에서 드러나 효과적인 개입을 실제 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개념도의 차원과 군집의 해석을 통해서 각 이론의 개입의 특성과 성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의 이론의 습득과 임상 실제에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합과 절충적 사용을 위한 범이론적인 관점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도 의의를 가진다.

넷째,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확인은 부부 상담자로서 성장하려는 상담 수련생이나 초보 상담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부부 상담자로서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가져오는 공통적인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적 개입 요인들과 기제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해야 한다(Gurman, 2011). 따라서 부부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부부상담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도움을 줄 것이며, 초심 상담자들이 효율적으로 상담 개입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와 안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의 부부상담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부부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상자 수는 확보하였지만 연구의 결과를 모든 부부 상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면접 대상자 중 남자 상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약소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비의 균형이 확보된다면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자가 인식한 부부 상담에의 성과를 가져오는 개입 요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담자 관점에 따른 성과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개입 요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내담자의 내면의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부 상담에서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한 실제 내담자를 통하여 내담자의 변화의 내적인 과정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부부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과 기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치료적 요인의 진술문들은 부부 상담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개입 요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전문 상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 상담도 다른 여타의 상담 분야처럼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숙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반복 연구와 아울러 부부 상담 초심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도 상담자의 전문성의 발달과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과를 이룬 상담의 개입 과정 뿐 아니라 실패를 한 개입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변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의 전 과정의 변화에 대한 치료적 개입 요인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회기 내의 세부적인 과정과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회기 내의 상담자, 내담자의 행동과 작은 성과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부부상담의 학계에서는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부부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과 기제에 대한 검증력 있는 경험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변화의 세부적인 기제를 밝혀내는 것은 부부의 변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주 (2002). 상담에서 도움된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미영 (1996). 이야기 치료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야기의 전환은 가능한가. 한국사회복지학, 30, 1-24.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1(3),

1289-1304.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02.
 김영란, 연문희 (2002). 상담단계별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체험 및 상담성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9-38.
 김유순 (2004). 가족치료 과정 연구로서의 가족치료 내담자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27-52.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유성진 (2002). 부부치료의 새로운 접근: 관용과 수용. 인지행동치료, 2(1), 1-13.
 김지현, 주은선 (2002).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89-804.
 김창대 (2009).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가설: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해, 30(2), 21-43.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김희정 (2009). 해결중심 가족치료에서 내담자 동맹의 발달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0(1), 605-626.
 박수영, 최한나 (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 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30.

- 성승연 (2008). 효과적인 치료자 요인에 대한 고찰. *동서사상*, 5, 1-22.
- 손은정, 이해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송미화, 전영주 (2013). 가트먼 부부치료와 정서중심 부부치료에 대한 비교 및 이혼 전 상담에서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21(3), 307-330.
- 송성자 (1997).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해결중심 가족치료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32, 160-180.
- 신혜중, 노치영, 김은영 (2005). 한국 가족치료 인력양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2), 29-60.
- 여혜경 (2000). 전문상담가와 초심상담가의 내담자에 대한 가설형성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2010). 내담자의 변화 동기 관련 상담 경험: 대학상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인간이해*, 31(2), 39-61.
- 이남옥, 최승미, 조현, 권정혜, 오현주, 정정숙 (2011). 부부상담연구소를 방문한 내담자 특성 및 초기 종결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43-575.
- 이선희, 임성문 (2013). 통합적 행동부부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49-476.
- 이수림, 양미진 (2009). 질적 분석을 통한 상담 과정 중 내담자 지혜 발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791-813.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87-509.
- 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09). 협의이혼상담 사례연구: 변화유발요인과 효과 탐색.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67-91.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정찬석 (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윤정, 김계현 (2007). 진로상담: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한재희, 김영희, 김용태, 서진숙, 송정아, 신혜중, 양유성, 임윤희, 장진경, 최규련, 최은영 (2013). 부부 및 가족 상담. 서울: 학지사.
- Bartholomew, K. & Perlman, D. (1994).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London: J. Kingsley Publishers.
- Baucom, D. H., Epstein, N., & Gordon, K. C. (2000). Marital therapy: Theory, practice, and empirical status. In C. R. Snyder & R. E. Ingram (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change: Psychotherapy processes & practices for the 21st century*. (pp 280-308). John Wiley & Sons Inc.
- Baucom, D. H., Sayers, S. L., & Sher, T. G. (1990). Supplementing behavioral marital therapy with cognitive restructuring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raining: An outcome investig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8(5), 636.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
- Bennett-Levy, J. (2006). Therapist skills: A cognitive model of their acquisition and refinement.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4(01), 57-78.
- Blow, A. J. & Sprenkle, D. H. (2001). Common factors across theories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 modified Delphi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3), 385-401.
- Blow, A. J., Sprenkle, D. H., & Davis, S. D. (2007). Is who delivers the treatment more important than the treatment itself? The role of the therapist in common facto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3), 298-317.
- Bowen, M. (1976).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multiple family therapy(pp. 388-404).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radley, B. & Furrow, J. L. (2004). Toward a mini theory of the blamer softening event: tracking the moment by moment by moment proc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2), 233-246.
- Cassidy, J. & Shaver, P. R. (Eds.)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 Castonguay, L. G. (1993). "Common factor" and "nonspecific variables": Clarification of the two concepts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3, 267-286.
- Chi, M. T., Feltovich, P. J., & Glaser, R. (1981). Categorization and representation of physics problems by experts and novices. *Cognitive science*, 5(2), 121-152.
- Christensen, L. L., Russell, C. S., Miller, R. B., & Peterson, C. M. (1998). The process of change in couples therapy: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2), 177-188.
- Davidson, G. N. & Horvath, A. O. (1997). Three sessions of brief couples therapy: A clinical tr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22.
- Davis, S. D. (2005). *Common and model-specific factors: what marital therapy model developers, their former students, and their clients say about change*. Ph. 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Davis, S. D. & Piercy, F. P. (2007). What Clients of Couple Therapy Model Developers and Their Former Students Say About Change, Part I: Model Dependent Common Factors Across Three Model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3), 318-343.
- Dimidjian, S., Martell, C. R., & Christensen, A. (2002).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n Gurman, Alan S., Jacobson, Neil 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51-277.
- Doss, B. D., Thum, Y. M., Sevier, M., Atkins, D. C., & Christensen, A. (2005). Improving relationships: mechanisms of change in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624.
- Foa, U. G., Tornblom, K. Y., Foa, E. B., & Converse Jr, J. (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San Diego: Academic Press.

- Friedlander, M. L., Talka, K., Haar, N., Higham, J., Martens, M., & Deihl, L.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SOFTA/SOATIF: Incunabulae*. Paper presented at the bi-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Newport, RI.
- Friedlander, M. L. & Tuason, M. T. (2000). Processes and outcomes in couples and family therapy. In Brown, S. D., Lent, R. W.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797-824.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Garfield, S. L. (1995). *Psychotherapy: An eclectic-integrative approach*. John Wiley & Sons.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ngland: Psychology Press.
- Gottman, J. M., Driver, J., & Tabares, A. (2002). Building the sound marital house: An empirically derived couple therapy. Gurman, A. S., Jacobson, N. S.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Gurman, A. S. (2011). Couple therapy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couple therapy: can we talk? *Family process, 50*(3), 280-292.
- Gurman, A. S. (2013). Functions and factions: A reflection on possibilities for couple 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4), 424-426.
- Gurman, A. S. & Fraenkel, P. (2002). The history of couple therapy: A millennial review. *Family Process, 41*(2), 199-260.
- Gurman, A. S. & Jacobson, N. S. (2002).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alford, W. K., Sanders, M. R., & Behrens, B. C. (1993). A comparison of the generalization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and enhanced behavioral marital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51.
- Heatherington, L., Friedlander, M. L., & Greenberg, L. (2005). Change process research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8-27.
- Hill, C. E. & O'Brien, K. M. (2004).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ltzworth-Munroe, A., Jacobson, N. S., DeKlyen, M., & Whisman, M. A. (1989).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marital therapy outcome and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658.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Integrative couple therapy: Promoting acceptance and change*. WW Norton & Co.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Psychology Press.
- Johnson, S. M. (1996).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 (Vol. 11)*. Psychology Press.
- Johnson, S. M. & Greenberg, L. S. (1985).

-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an outcome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313-317.
- Johnson, S. & Lebow, J. (2000). The “coming of age” of couple therapy: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1), 23-38.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Kelly, A. B. & Halford, W. K. (1995). The generalization of cognitive - behavioral marital therapy in behavioral, cognitive and physiological domains. *Behavioral & Cognitive Psychotherapy*, 23, 381-398.
-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effects modeling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2), 161-172.
- Kivlighan Jr, D. M. & Quigley, S. T. (1991). Dimensions used by experienced and novice group therapists to conceptualize group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15-423.
- Knobloch Fedders, L. M., Pinosof, W. M., & Mann, B. J. (2007). Therapeutic alliance and treatment progress in couple psycho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2), 245-257.
- Lebow, J. L. & Gurman, A. S. (1995). Research assessing couple and family therap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1), 27-57.
- Luborsky, L., Singer, B., & Luborsky, L. (1975).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ies: is it true that everyone has won and all must have priz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8), 995-1008.
- Nichols, M. P. (2014).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6th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제6판(김영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Scharff, J. S. &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1(2), 141-173.
- Sexton, T. L. (1996). The relevance of counseling outcome research: Current trend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74(6), 590.
- Sexton, T. L. (2007). The therapist as a moderator and mediator in successful therapeutic change. *The Association for Family Therapy*, 29, 103-107.
- Sexton, T., Gordon, K. C., Gurman, A., Lebow, J. A. Y., Holtzworth-Munroe, A. M. Y., & Johnson, S. (2011). Guidelines for classifying evidence based treatment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50(3), 377-392.
- Shadish, W. R. & Baldwin, S. A. (2005).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6.
- Snyder, D. K. (1999). Affective re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a pluralistic approach to couple therap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 α4), 348-365.
- Sprenkle, D. H., Davis, S. D., & Lebow, J. L. (2009). *Common factor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The overlooked foundation for effective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Stiles, W. B., Shapiro, D. A., & Elliott, R. (1986). Are all psychotherapies equivalent? *American psychologist*, 41(2), 165-180.
- Symonds, D. & Horvath, A. O. (2004). Optimizing the alliance in couple therapy. *Family Process*, 43(4), 443-455.
- Tracey, T. J., Lichtenberg, J. W., Goodyear, R. K., Claiborn, C. D., & Wampold, B. E. (2003). Concept mapping of therapeutic common factors. *Psychotherapy Research*, 13(4), 401-413.
- Wampold, B. E. (2013).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Vol. 9)*. Routledge.
- Wetchler, J. L. (Ed.). (2011). *Handbook of clinical issues in couple therapy*. Taylor & Francis.

원 고 접 수 일 : 2015. 10.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1. 19

게재결정일 : 2016. 02. 01

Counselor's Perception of Therapeutic Intervention Factors in Couple Therapy

Lee, Hong-Sook

Choi, Han-N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ounselor's perception of therapeutic intervention factors that bring effective outcomes in couple therapy. For this purpose, ten couple therapy experts were interviewed, and responses were rated by 15 couple therapists regarding similarities and the importance of statements collected from the interview. As a result, 60 statements were identified as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actors that bring effective outcomes in couple therap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employed to identify dimensions and clusters of the statements. The results suggested three dimensions: 'Groundwork for intervention vs. Contents of intervention', 'Explanation-oriented intervention vs. Action-oriented intervention', and 'Individual-focused intervention vs. System-focused intervention' and six clusters: 'Working with family system', 'Working with the individual as a relationship change agent', 'Evaluating couple system', 'Training knowledge and skills for problem solving', 'Facilitating experiential acceptance and communication within couples' and 'Providing structure and safety for change'.

Key words : therapeutic intervention factors, couple therapy, concept mapping